

성명	장인환	수험기간	2차: 2023.03~2025.07.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물리학과(이중:전기전자)
키워드	삼시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62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장인환입니다. 저는 합격수기를 단 하나 찾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누구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을 준비하여 긴 수험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주변의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언을 들으면 시간이나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글을 써봅니다.

다만 저는 제 수험생활이 문제가 많았다 생각하여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험임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결국 실력을 향상시켜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각자 본인이 어떻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87.5	87.5	75

-민법- 87.5점

【강의 및 교재】

민법 기본강의, 중급강의, 객관식 강의, 최신판례강의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기본	중급	객관식	객관식+기출	최판+회독

1. 수험생활 시작

변리사 공부를 시작하시면 민법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민법 기본강의를 처음 들으시면 하셔야 할 일은 완전한 암기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법률용어들을 알고 문장들을 익숙하게 해야 나중에 긴 글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읽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은 모든 법률과목을 공부하는데 핵심 기초가 됩니다. 너무 하나하나 깊게 빠지지 않고 구멍이 있어도 빠르게 기본강의를 한 번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처음에 이해하려고 너무 깊게 공부하면 시간낭비이고 법률적 지식의 기초도 없어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너무 긴 강의이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한번 돌리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2. 중급 강의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중급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부분의 개념을 이해해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깊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본적인 법 지식을 쌓는 것만 하더라도 벽감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3. 객관식 강의

(1) 소개

1차 공부의 핵심은 객관식 강의입니다. 정확히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여 동차, 삼시 때 1차를 학교 다니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의 기본강의, 중급강의는 이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2) 공부 방법

이미 유명한 방법이겠지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강의 신청 전에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훌쩍 또는 3개로 나누어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회독을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홀수 문제들을 풀 때는 시험과 같은 속도로 하게 되면 거의 짝게 되는 속도가 나옵니다. 아직 읽는 속도가 그만큼 나오지 못하니깐요. 그러니 좀 더 마진을 두고 제한시간을 정하여 푸는 연습을 하고 10문제씩 풉니다. 그리고 다 풀면 바로 문제 풀 때 헛갈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을 보며 채점하고 모르는 개념을 기본서에서 찾아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짝수 문제들은 홀수 문제가 절반정도 넘어가면 홀수 문제와 병행합니다. 홀수 문제 시작하신지 2주가 지나면 편하실 때 병행하면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고 기본서 보고 외웠다고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시험과 같은 속도로 풀면서 머리에 재차 넣는 겁니다.

그 후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 넣고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동차 때는 강의까지 들었지만 삼시 때는 시간이 없어 문제집만 사서 공부했습니다.

(3) 반복

이 과정을 시험 때까지 여러 번 돌리면 문제 내는 방식이 약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서 회독 돌릴 때도 어디를 암기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4. 기출문제

사실 기출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들은 이미 객관식에 있지만 시간을 제한하고 시험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풀어보면 좋습니다. 최신판례를 공부하고 가면 시험에서도 금방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5. 최신판례

간단히라도 반드시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잘 아는 문제가 있으면 시험의 시간제한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덕을 많이 봤습니다.

【회독 방법】

앞서 언급 드렸던 객관식 풀며 회독이 효과적이지만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도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주시면 민법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할 것 중심으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다 맞을 필요 없고 다 알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산업재산권법- 87.5점

【강의 및 교재】

특허 기본강의, 중급강의, 객관식강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상표 기본강의, 객관식강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디자인 기본강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특허법】

(1) 서설

산재법의 기본은 특허법입니다. 절차와 같이 겹치는 부분은 모두 특허법으로 해결하고 다른 부분을 특허법과 비교하여 외우시는 방식임을 기억해주세요. (일부 완전 다른 부분은 개별적 공부)

(2) 2차와 관련성

저는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저 맘대로 공부해서 법조문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는 멍청한 방법도 하고 판례를 통으로 외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외운 것 다 쓸모없습니다. 어차피 2차가면 취지와 섞어서 다시 외우고 판례도 키워드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적절히 씁니다. 다만 기간들이나 주요 조문 번호와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별개의 공부라 보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3) 방법

기본적으로 민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는 것을 꼭 염두하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식의 홀수번 짝수번이 조금의 간격을 두고 테블릿에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방법에서 오답의 중요성은 민법보다 산재법에서 더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상표법】

기본적으로 특허법과 유사하므로 다른 제도를 잘 보고 또 이의신청같이 디보법하고 비교할 것은 디보법하고 비교하며 공부하였습니다. 10문제니까 너무 힘쓰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저는 2차 디보법이 아니라서 진짜 간단히 보았습니다. 길게 보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고, 기본강의만 들었습니다. 매번 반복해 나오는 부분위주로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집 하나 찾아서 거기 있는 문제들만 너무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본서 회독 1회는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회독 돌릴 시간이 없으시면 마지막에는 기출이나 객관식문제들에 있는 내용만 외우시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생각합니다.

-자연과학개론- 75점

【강의 및 교재】

각각 기본서 및 객관식문제집 (통합본의 경우 통합본 사용)

【물리】-2

저는 물리학과라 학교공부로 배웠습니다. 시험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으면 버렸습니다. 화학 때문에 시간이 항상 너무 부족하더군요.

【화학】-2

교재를 통해 단원별로 공부하고 암기하고 문제들 보고 오답하고 그 정도 하였습니다. 유기화학 일부내용은 그냥 버렸습니다.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공부할 시간 없었습니다.

【생물】-4

기본강의 들으면서 기본서 보고 외우고 문제들 보고 오답하고 특별히 화학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잘 알아두고 너무 넓게 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 공부방법으로 시험 때 생물에서 정말 많이 틀렸으니 다른 분들의 공부법을 참고해주세요.

【지구과학】-2

지구과학은 그 내용이 비교적 적어서 너무 공부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공통적인 방법】

위와 같이 평범한 방법으로 공부하여 시험 1달 전까지 2바퀴 돌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1달 전쯤 되면 주요내용이나 자주 틀리던 내용을 A4용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과목마다 페이지 수가 달랐지만 대부분 2장 밑으로 최대한 압축해 적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시키고 결가지 내용도 과감히 삭제시켰습니다. 결가지 부수적인 내용은 회독할 때 잘 알아두시고 직전에는 주요내용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시간 관리】

폰이 문제였습니다. 쇼츠 때문에 무기력하게 침대에서 몇 시간씩 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사실 쇼츠가 뇌를 다 녹여서 그런 거니까, 그날 조진 것 같아도 그냥 그만두고 공부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움직이더군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 시간 분배는 공부를 하면 시간이 좀 치우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법 시간을 기본으로 두고 그 때그때 제일 부족한 과목 돌리고 2주내로는 반드시 공부하고 정도만 지키면서 했습니다.

【체력 관리】

저는 정말 남들에 비해 체력도 적고 개복치라서 쉬엄쉬엄 했습니다. 항상 1차 공부는 학업과 과외와 병행해서 그냥 꾸준히 하고 싶 때 다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준비를 오래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2차 준비에 비해서는 매우 할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1) 평소 문제풀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과생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과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지를 가깝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문제 풀면서 보는 것은 비추합니다. 사후적고찰로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다 풀고 나면 답지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몇 번 풀어야하니 따로 태블릿에 문제 번호 쓰고 풀고 거기에 오답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험 전에 그 오답을 한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 되십니다.

(2) 시험에서 문제풀이

그냥 정신없이 풀어야했습니다. 민법처럼 완전 잘 아는 최신판례를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답이 나왔으면 3개정도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보기를 다 체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기득: 53.66	기득: 52.00	기득: 56.33	기득: 88.00
삼시: 42.66	삼시: 51.33	삼시: 65.66	삼시: 89.66

-민사소송법- <점수: 42.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기본강의, 중급강의, 기초gs 1개
기득 중급강의, 실전gs 3개
삼시 이창한 교수님 실전gs 2개
- 교재
각 강의 교재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1차준비	개념복습	실전gs	실전gs	복습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과락
민소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대학교처럼 학문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동차로 붙기 힘듭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으니 원래 그런 줄 알고, 동차는 못 붙는 거라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입문, 기본강의 다 듣고 기초gs 한 개 듣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제발 수험 적합한 이창한 교수님 같은 분들의 수업을 들으세요.
- 기득 기간: 53.66
제가 수험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강사님들 실력 다 좋으니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린 말 같습니다. 동차시험이 끝나고서야 저는 느꼈습니다. 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수험에 부적합하다. 본인 공부가 수험에 적합한지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gs시기에 여러 강사를 옮기며 헤맸습니다. 결국 정착 못하고 시험을 본 저는 민소 성적 때문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 삼시 기간: 42.66
(1) 공백기
제 삼시 민소 성적을 보시면 어떻게 붙었는지 신기하실 겁니다. 기득 시험 끝나고 저는 멘탈이 터져서 수험에 관련된 것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고 유럽여행을 다녀오고 심지어 24학년도 2학기를 학교에 다녔습니다. 기득불합격 발표가 나고 학교공부와 1차 공부만으로도 벅차서 1차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2월 1차 시험이 끝난 후 거의 9개월을 민소를 안 본 저는 머리에 민사소송법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2) 긴급처방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저 혼자서 아무 강의 없이 다시 공부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듯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이창한 교수님의 실전gs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과락이라도 면한 것 같습니다. 수험에 적합하게 민소를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민소는 내용이 많아서 수험에 적합한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

민소도 주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외우면서 넘어가려고 노력했고 나머지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 gs오답을 기본서 남는 앞이나 뒤에 옮겨 적고 같이 회독을 돌렸습니다. 제 공부방법을 추천드리기에는 제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가 하고 후회한 작업을 말씀드리면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각 단원 논점의 문학판검을 제가 편한 언어로 적었습니다. 기득 때 이걸로 시간 많이 버렸습니다. 잘못된 강사의 수업을 들으니 그 답안지가 수험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맘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창한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면 기득 때 붙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허법- <점수: 51.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 강의만 들었습니다.
동차 기본강의 기초gs
기득 실전gs 2개
삼시 실전gs 2개
- 교재
준특허법, 판례 사례(상, 하)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개념공부	실전gs	복습	실전gs	복습+최판정리

【시기별 공부】

솔직히 강의나 교재의 완성도는 박형준 변리사님이 모든 과목 통틀어 일등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외우면 되는 과목이라 항상 50대로 준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gs에서 가끔 50 중반이 나오기도 했지만 53점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 동차 기간 48.xx

기본강의 듣고 기초gs까지 했습니다. 총알 위주로 그거라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 양으로도 벅했지만 외우는 대로 성적은 잘 올랐었습니다.

▪ 기록 기간 52

기록기간에는 총알에서 외웠던 부분에 대해 복습하며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gs현강을 한번 가봤는데 도저히 체력이 못 받쳐줘서 그냥 수업 몇 개는 안 갔습니다. 다시 인강으로 돌아와서 나머지를 들었습니다. 최신 논점이나 판례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허와 상표는 전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최신 논점이나 판례를 대부분 내니까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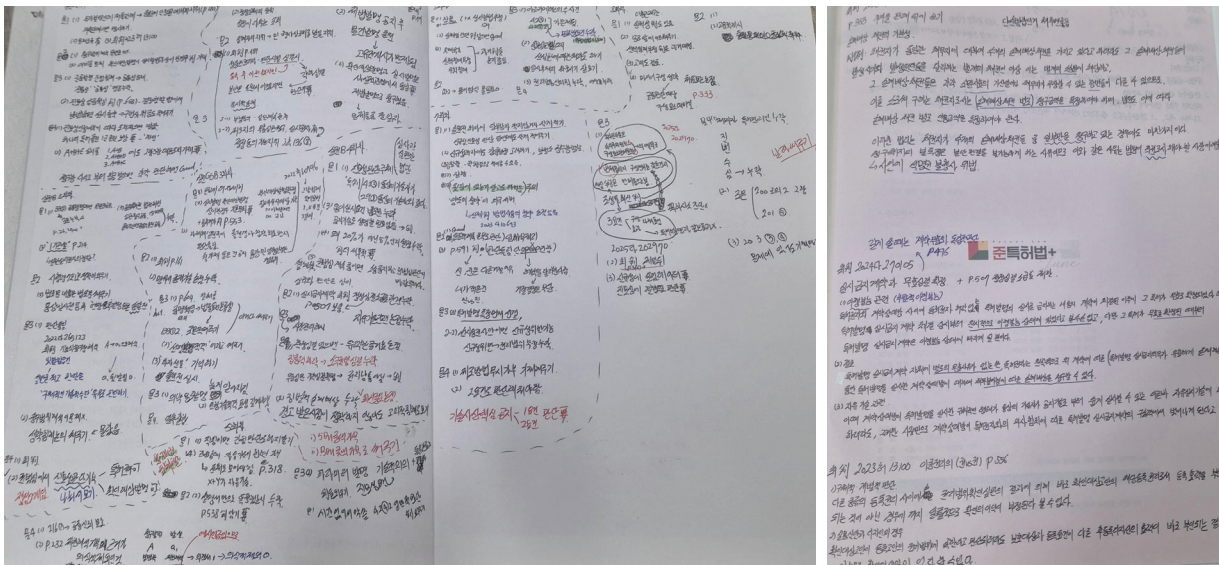
▪ 삼시 기간 51.33

제 삼시 기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2차 시험 기본서를 펴본 적 없어서 내년을 노려보아야하나 생각도 들고 2월말 3월쯤은 매주 그만두고 싶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전gs 써보니 점점 기억이 나고 생각보다 써지더군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금방 50점 초반은 회복했는데 그 이상 점수가 잘 안 올라가더군요. 다들 특허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 잘 쓴 정도로는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 항상 든든했습니다.

【회독 방법】

앞서 민소와 같이 gs오답이 같이 있는 기본서인 준특허법을 돌렸습니다. 총알 중심으로 gs에 나온 내용정도만 추가적으로 보았고 그 밖의 참고 부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다 외워갈 자신도 없었고 너무 방대했다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최판 나오면 최판 다 적어 넣고 빨간색 책갈피 포스트잇으로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자꾸 못 외우거나 자주 놓치는 부분을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시험 전주에 쪽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진짜 스쳐가는 것도 다 기억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 빠르게 발랐습니다.

사진 좌(gs오답) 우(최판)



【암기 방법】

준특허법에 총알 자료에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 중심으로 회독 때마다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정말 안 좋아서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 무엇보다 안보고 써보기를 해보면 빈곳이 바로 나와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따는 방법이 여러 개가 되니까 헛갈려서 초반에 1/5 정도만 그 방법으로 외웠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파악해서 큰 흐름을 따라서 외우는 방식이 특허 상표에서는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기억이 오래갔습니다.

-상표법- <점수: 65.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한경훈 변리사님 강의로 대부분 들었습니다.

동차 기본강의 기초gs

기득 판례강의 실전 gs 3개

삼시 실전 gs 2개

▪ 교재

점 (선 면)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개념공부	실전gs	복습	실전gs+최판	정리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8.xx

그냥 gs 따라가기도 바빴습니다. 상표에 시간을 거의 쓰지 못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잘못된 민소강사선택으로 자포자기로 보냈습니다. 강사님들이 항상 동차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로써는 그 선택지가 가능한 한 건지 의문이었습니

▪ 기득 기간 56.33

동차 시험이 끝나고 쉬고 점으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회독을 돌리면서 판례에 대해 이해도가 낮음을 느끼고 판례 강의를 들었습니다. 좀 더 맥락을 이해하고 암기도 더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유 있으실 때 판례강의 추천 드립니다. 다만 판례 교재를 회독하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잘 이해 안 될 때 꺼내 보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 시간에 민소를 봐야합니다. 그 러고 실전gs와 최신 판례강의 듣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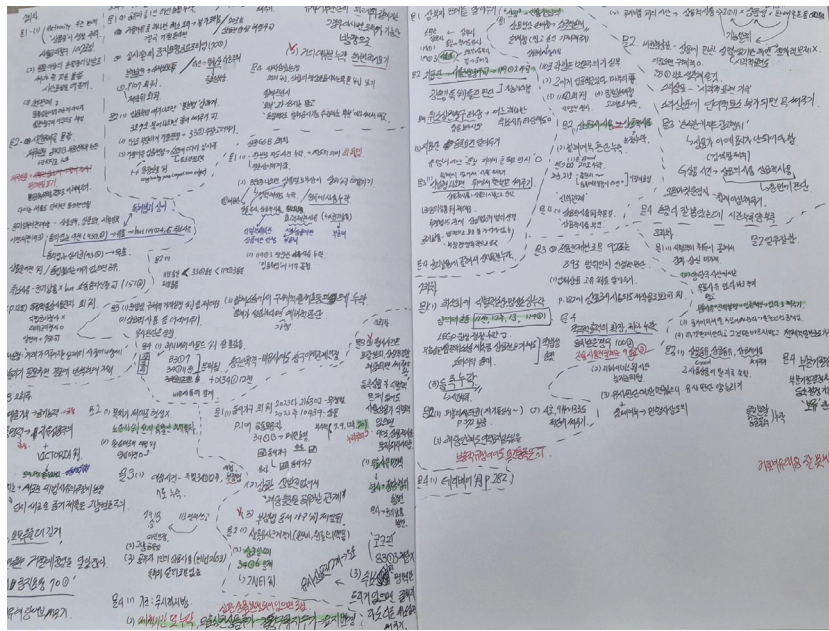
▪ 삼시 기간 65.66

1차 끝나고 다른 과목은 많이 까먹었는데 상표는 판례강의 덕분에 머릿속에 이해한 구조가 거의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암기만 다시하고 바로 gs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3월 gs 나오기 전에 작년 gs도 다시 풀어보고 확실히 상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신 판례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표단을 비교적 좀 자세히 봐 놓은 덕분에 이번시험 고득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회독 방법】

점 한권에 필기를 더하면 더 이상 다른 교재를 볼 필요 없이 거기 있는 내용이나 잘 익히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s오답을 책에 옮겨 담는 정도와 최신 판례를 옮겨 적는 것 2개 정도만 하고 계속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회독 시에는 시험에 적을 수 있는 단위로 잘라서 외우고 무기로 갖고 있다가 쓰는 느낌으로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은 잘 안되고 상표에서만 잘 되었는데 판례의 맥락을 자세히 알아둔 덕분에 머리에 구조가 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gs오답)



사진의 빨간색은 또 모른 내용이고 파란색은 다시 봤을 때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암기 방법】

판례강의에서 배웠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점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의 의미를 기억하며 키워드를 외웠습니다. 제가 암기력이 좋지 못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최신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꽤 높은 정확도로 암기하였습니다.

-회로이론- <점수: 89.66점>

【강의 및 교재】

강의: 학교수업, 교재: 객관식 교재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복습	모의고사

【시기별 공부】

솔직히 회로이론은 PF전환 후에 난이도가 쉬워져서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문제집 잡고 단원마다 절반의 문제 정도만 풀 정도의 실력을 지니면 충분히 80 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5월쯤에 교재 보면서 개념 다시 보고 퓨리에 변화 외우고 각 단원 문제 절반정도씩 풀어보시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과공부이니까 답안지는 최대한 멀리 개념만 알고 혼자 힘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제일 마지막 쪽은 많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반만 맞으면 되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는 한번 보시고 들어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모의고사 난이도가 시험과 비교해 높지만 계산기 사용이나 시간 내 풀고 오답확인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암기 방법】

그 행렬로 변환되는 것 대충이라도 외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x1 y1 x2 y2 순으로 그림 그려서 그 모양을 외워갔습니다. 마이너스 붙으면 검은 점찍고 그 모양을 외웠습니다. 각종 변환은 당연히 외우고 가는 걸 추천 드립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19페이지	약 23자	1.목차 사이에 엔터X ...	세로 폭의 90% 정도
특허법	19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8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가 서로 겹치지 않을 정도로 쓰고 가운데 띄어쓰기를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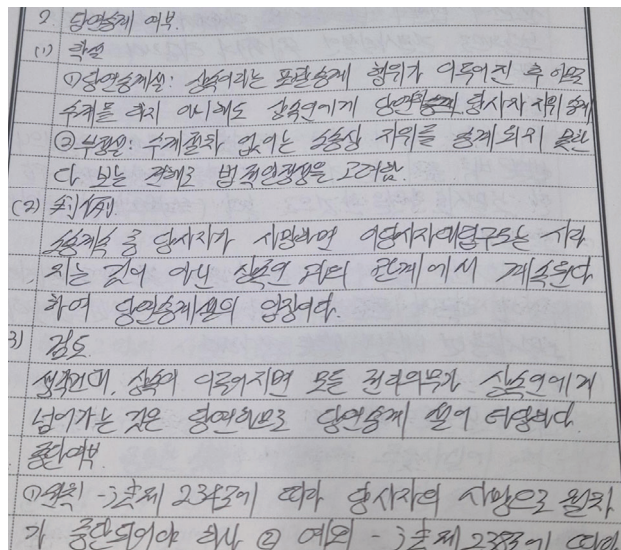
【사용한 펜】

원래 제트스트림 좋아해서 연습할 때는 0.5, gs나 시험에서는 0.7 썼습니다. 0.5가 잘 안 써져서 속도가 안 나와서 0.5 쓰다가 0.7 쓰면 속도가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요즘 최신 대세는 목차를 머릿속에서만 세우고 쓰는 게 대세인 듯합니다. 최대한 많은 답안지 양을 적기 위함이겠지요. 저는 그게 잘 안 되서 간단히 한 단어씩이라도 목차를 쓰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사진 답안지 대충 이런 식이나 실제 답안지는 좀 더 뽀뽀하게 썼습니다.



【과목별 전략】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표인거 같고 상표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안포섭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안을 판례와 같이 포섭하는 것이 정말 득점에 도움이 되고 이번에도 주변에 물어보면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정확히 논점이 무엇인지 또 정확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번 문제는 꼼꼼히 논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평소에도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문제 형식은 gs에 다 있었으니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동차 때는 많은 일과 병행해서 시간을 관리하지 못했고 기득 때는 그냥 되는 데까지 했습니다. 원래 엄격한 시간표에 저를 넣고 살아봤는데 얼마 안 되니 스터디카페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오고 너무 현타가 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기로 저와의 약속했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시도했는데 눈꺼풀에 염증이 크게 나서 2주간 눈을 제대로 못 뺐습니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평소에 9 to 6하셨으면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험 전 몇 달은 예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1) 체력

자주 방전되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박혀있기 일수였습니다. 이 시험이 준비할수록 이 두 가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격하게 느껴지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gs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바빠서 본인의 한계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 gs 3개씩 돌릴 때 2개도 벅차서 인강 일시정지 했습니다. 항상 남들에 비해 내가 나약한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헬스장 3개월은 항상 다녔습니다. 공부는 덜 해도 목 허리 건강이나 체력은 늘려야 살 수 있을 것 같더군요.

(2) 멘탈

남 탓하세요. 제가 수험생활 때 민소를 못 했던 건 지금 생각하면 강사를 잘못 골랐던 건데, 그때는 그냥 다 제가 너무 재능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본인 멘탈을 위해 속으로 남 탓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탓만 한다면 무덤 파서 혼자 들어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남 탓을 인터넷에 배설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고 다니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장소】

1차는 학교 과제도 같이해야 해서 학교나 일반 카페에서도 했지만, 2차 준비는 1년마다 스터디카페를 바꾸며 공부했습니다. 장소는 딱히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 오래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휴식】

그냥 자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민소: 이창한 교수님 수업 추천 드립니다. 정말 수험 적합합니다. 저는 비록 늦게 찾아서 짧게 밖에 못 들어봤지만 그 몇 달 만에 민소가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특허: 박형준 변리사님 수업 기본강의부터 gs 최판까지 다 추천합니다. 완성도가 진짜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 한경훈 변리사님 수업도 기본부터 gs 최판 다 좋습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특히 상표는 시간 나실 때 판례강의가 정확한 맥락 이해와 문제 적용의 기초를 다지 실 수 있습니다.

【2차 상표과목의 고득점 비결】

(1) 사안포섭

우선 기본적으로 한경훈 변리사님이 매년 강조해주신 사안포섭은 무조건 남들보다 자세히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s로 정확히 연습해두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 모두 자세히 포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제한시간에 빠르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2) 제도의 취지 알기

취지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은 아니나 알아두면 진짜 요긴합니다. 이번 시험 1번 같은 경우가 취지를 강조해서 써서 제가 상당히 고득점(18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 변리사님 교재에 있는 의의와 취지를 합친 것으로 잘 외우고 있었습니다. 취지는 어디에도 꺼 넣기 좋기 때문에 수미상관 하기도 좋고, 혹시 잘 모를 때 양 늘리기 하기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무 때나 바르지 마세요. 잘 아는 논점이나 취지가 별로 안 중요할 때 길게 바르면 점수가 안 들어가니 주의하세요.

(3) 애매한 논점 잘 기억해두기

이번 문제 3번의 구체적 출처혼동의 경우가 그걸 써야할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동기들이 많았는데, 구체적 출처혼동임을 알았던 동기들이 대부분 20점에 가깝거나 20점을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경훈 변리사님 gs에서 이 부분을 항상 놓쳐서 이걸 적어야할 상황을 많이 생각해두고 바로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용할 상황이 완전 명확하지 않은 이런 논점을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거 gs에서 수험생활 내내 주의했는데도 총 3번 정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욕하며 머리 때리면서 외웠습니다. 이런 논점 기억해두세요. 유용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못쓰니 점수차이를 벌리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마치며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gs로 도배된 2차 준비하는 기간은 정말 지옥과 같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저도 수험생활 내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에 시간을 갈아 넣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길거나 고되지 않길 바라고 행운을 빕니다.